



제2회 농어촌산업박람회 'Made in Green fair' 개최

'우수 축산물 페스티벌' 과

'수산물브랜드대전' 과 통합, 시너지 효과 창출

글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

'메이드 인 그린 페어'가 8월 1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C, D홀에서 열린 제2회 농어촌산업박람회 'Made in Green fair'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역발전위원회 주최,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협회 주관으로 전국 473개 농어촌 기업체에서 730여 부스가 참여해 12만명의

참관객을 끌어 모으면서 R&D와 장인정신을 통해 탄생한 농어촌 명품 특산물 및 가공제품, 기능성 제품을 각기 선보였다.

이밖에도 각 농어촌 기업체의 홍보대사인 탤런트 오지호씨와 윤상현씨의 팬사인회와 f(x), 시크릿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KBS 2TV 리얼리티 프로그램 '청춘불패' 팀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왼쪽 3번째)과 내빈들이 우리 축산물을 시식하고 있다.



축산물 Value 갤러리, 닭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다. 이날 시상식에는 노주현을 비롯해 김태우, 김신영, 효민, 나르샤, 소리, 선화, 빅토리아, 유리(소녀시대) 등이 참가했으며, 유치리 주민들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농어촌산업박람회는 '우수 축산물 페스티벌', '수산물브랜드대전'과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농어촌산업박람회'는 지자체별 우수 농어촌 상품을 개발, 육성하여 새로운 농어촌 상품의 수요창출을 위해 진행되는 행사이며, '우수 축산물 페스티벌'은 국내 최고의 축산물 브랜드 전시 및 시식과 판매를 통해 브랜드 경영체에는 홍보의 장을, 소비자에게는 우수 축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수산물브랜드대전'은 우수 수산물 브랜드를 한 자리에 전시하는 행사로 이렇게 3개의 농업관련 행사가 동시에 실시되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양한 축산물 및 가공품 전시 및 시식

D홀에서 열린 '우수 축산물 페스티벌'에는 총 75개 업체, 244부스 규모로 정부 지원 브랜드, 소시모 인증 브랜드 및 광역 브랜드 등이 참여하여 축산물과 축산가공식품 등을 전시하고 4일 동

안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부대행사로써는 한국을 불고기 원조국으로 대내외에 알리는 '불고기 원조국 선포식'을 갖고, 행사 후 장태평 장관을 비롯 국회의원과 축산관련 단체장들이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한우 불고기를 배식했다. 아울러 양돈 홍보대사인 텔런트 오지호씨는 팬들에게 직접 만든 돼지 불고기 1,111인분을 관람객에게 무료로 나눠주었다.

본회는 닭고기 홍보를 위해 닭고기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와 국내산 닭고기에만 붙는 안심마크인 '품질보증마크'를 집중 홍보해 관람객들에게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렸다. 또한 8월 5일부터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기 위한 쇼핑백 5천장과 배너를 제작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 외에 가공제품 전시, 축산물 Value 갤러리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했다.

이밖에 육가공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베스트 육가공품 선발대회'가 처음 열렸다. 이번 대회는 햄(델리카포함), 프레스햄(혼합프레스햄 포함), 소시지, 베이컨, 육포(우육, 돈육) 5개 유형의 제품을 출품, 1·2차 심사를 거쳐 총 12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으며, 그 중 롯데햄이 대상(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① 본회는 닭고기 우수성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② 불고기 원조국 선포식 ③ 청풍명계 부스 ④ 칠갑산 토종닭 부스
 ⑤ 홍주골 가력닭 부스 ⑥ 한돈 불고기 1,111인분 배식 행사에 텔런트 오지호씨가 함께 했다. ⑦ 닭고기 관련 업체중 유일하게 독립부스를 꾸민 (주)하림

우수 소·돼지 페스티벌(?)

이번 페스티벌도 '역시나' 소와 돼지고기의 잔치였다. 총 75개의 참가업체 중 닭고기 관련 업체는 단 4개사. 독립부스로 전시장에 출품한 닭고기 회사는 (주)하림이 유일했다.

이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왜 유독 닭고기 관련 업체들의 우수 축산물 페스티벌 참여가 저조한 지 행사 주관 단체에서는 생

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닭'이 '구색 맞추기' 용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하려면 말이다.

정부는 올해도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경영체 종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역시 사업대상자는 한·육우 및 돼지로 국한되어 있다. <K>